

## 부모-비혼 성인자녀 관계의 재조명

: 동거 및 경제적 의존 여부에 따른 집단별 특성 차이를 중심으로

## Elderly Parents-Unmarried Adult Children Relationships

: Group Differences by Co-residency and Economic Dependency of Adult Children

성미애(Miai Sung)<sup>1</sup>, 최연실(Younshil Choi)<sup>2</sup>, 최세은(Saeun Choi)<sup>3\*</sup>, 이재림(Jaerim Lee)<sup>4</sup><sup>1</sup>Department of Human Ecology,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sup>2</sup>Departmen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sup>3</sup>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sup>4</sup>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and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 &lt;Abstract&gt;

Following the global trend of the delayed transition to adulthood, the number of unmarried middle aged adult children living with, or economically dependent on their parents has increased in Korea. Middle aged adult children in Korea are traditionally expected to satisfy their duty to support their elderly parents both in economic and emotional needs. This study aims to explore group differences in unmarried adult children in their mid 30s or older and in parents having unmarried middle aged child(ren) depending on co-residency and the children's economic dependency in Korea. Using quota sampling in terms of living arrangements (living together vs. living apart), 500 unmarried adult children 35 years of age or older and 500 elderly parents, having at least one unmarried child in the mid of 30s or over, were selected in Seoul, Korea in June 2016. First, the findings show that unmarried adult children living together with their parents and depending on their parents economically were in the lowest level of educational achievement and the lowest level of monthly average income among the respondents. Second, both unmarried adult children and parents from the group of co-residency and economically dependent showed the lowest level of psychological well-being. Third, parents from the group of co-residency and economically independent had mostly positive relationships with children, whereas, parents from the group of living apart and economically dependent reported the most negative relationships. Finally, respondents included in the group of co-residency had positive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the support for their elderly parents regardless of the child's economic dependency. This study has implications for the increasing number of unmarried middle aged adult children and their elderly parents.

▲주제어(Key words) : 비혼 성인 자녀(unmarried adult children), 세대간 동거(intergenerational co-residency), 세대간 지원(intergenerational support), 캥거루 가족(kangaroo family)

• 본 연구는 2015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임(NRF-2015S1A5A2A03048460)

• 본 연구는 2016년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 Saeun Choi,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50 Taeseongtabyeon-ro, Gangnae-myeon, Heungdeok-gu, Cheongju-si, Chungbuk 363-791, Korea, tel: +82-43-230-3734, Email: saeun@knue.ac.kr

## I. 문제제기

본 연구는 부모와 비혼 성인자녀의 동거 여부 및 경제적 의존 여부를 중심으로 부모-비혼 성인자녀 관계를 집단별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인 전기에 이루어야 하는 발달과업은 자신의 직업을 가지면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다. 자녀의 성인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 슬하'에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당연시 하는 한국 문화에서는 주로 결혼과 함께 부모와 거주를 달리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방향으로 성인 전기 발달과업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현재는 초혼 연령(남성의 경우 32.57세, 여성은 29.96세: Statistics Korea, 2015)의 상승과 독신의 증가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청년층을 둘러싼 경제적 상황(실업의 만성화, 실질임금의 하락, 고용불안정의 심화 및 주택구입가격 등의 상승)의 악화로 인해 성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성인 전기 발달과업을 이루기가 어려워지고 있다(L. Descartes, 2006; J. Lee, 2015; S. Vassallo, D. Smart, & R. Price-Robertson, 2009; M. Yamada, 2004).

실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가구주인 부모와 동거하는 30-40대 성인 자녀가 약 48만 명으로, 전체 가구 수의 1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tatistics Korea, 2012). 서울시에 따르면, 이 수치는 2000년에 약 25만 명이었던 것에 비해 10년 사이에 두 배 가깝게 증가한 것이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3년 사회조사에서도 60세 이상자 중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32.2%로 나타났다(Statistics Korea, 2013).

이러한 성인자녀의 부모와의 동거는 독립해야 하는 성인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존으로 인식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족 및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는 '캥거루족', '기생독신', '연어족' 등의 용어로 지칭되면서 언론 등에 언급되고 있다. 국내의 베이비붐 세대 연구에서도 50대인 베이비부머가 느끼는 가장 큰 짐이 독립을 못하는 '캥거루족' 자녀인 것으로 드러났으며(G. Han, 2011), 베이비부머의 미혼자녀 수는 실제로 이들의 결혼불안정성을 예측하는 변수로 나타났다(M. Sung & J. Byun, 2013).

그러나 부모-성인자녀 동거를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기생'으로 보거나 노부모 '부양'으로 바라보는 평면적인 관점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녀의 필요에 의해 동거하는 경우와 부모의 필요에 의해 동거하는 경우가 모두 존재한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3년 사회조사에서 60

세 이상 인구가 자녀와 동거하는 주된 이유를 물어본 결과, 부모 측에서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서 동거한다고 밝힌 경우가 39.5%로 나타났으나(경제적 이유 등으로 자녀의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져서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29.3%, 손자녀의 양육 및 자녀의 가사를 돕기 위해서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10.2%), 수입, 건강 등 본인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해져서 자녀에게 부양을 받고자 같이 산다는 이유도 유사한 비율인 36.0%인 것으로 나타났다(Statistics Korea, 2013). 또한 중년기 비혼 여성의 결혼과 가족 담론을 살펴본 연구(M. Sung, 2014)나 성인자녀와 부모의 동거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연구(Y. Choi, 2014)에서도 부모와 비혼 성인 딸이나 독신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의 부모 돌봄이나 부양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한국가족에서 성인자녀와 부모의 동거는 '자녀의 일방적 의존'이거나 '노부모 부양'이라고 단순히 결론 내릴 문제는 아니며, 훨씬 복잡한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 비혼 성인자녀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연구 설계와 접근,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독립에 대한 가치가 강조되는 서구사회와는 다른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부모-비혼 성인자녀 관계를 재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세대와 비혼 성인자녀세대 간 동거에 따른 상호작용과 관계 메커니즘을 보다 명확히 살펴보고자, 부모세대와 비혼 성인자녀세대 간 동거 여부 및 경제적 의존 여부를 축으로 집단을 구분해서 부모-비혼 성인자녀관계에서 보이는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집단 간 차이를 보고자 선정한 특성은 부모-비혼 성인자녀세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부모생존여부, 형제수, 교육수준, 취업형태, 월평균소득, 건강상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심리적 적응 특성(주관적 행복, 생활만족도, 자존감, 우울, 자아분화), 부모-성인자녀 관계 특성(교류빈도, 의사소통만족도, 전반적 부모-성인자녀관계만족도, 최근 부모-성인자녀관계 변화, 애정적 결속, 성인애착), 가족관련 가치 및 태도 특성(결혼관, 성인자녀지원에 대한 태도, 노부모 부양의식, 긍정적 자녀관, 부정적 자녀관, 가족주의)이다. 동거와 경제적 의존을 중심으로 비혼 성인자녀세대를 집단화 하여 차이를 살펴본 실증적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자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변수를 구성하여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부모-비혼 성인자녀 관계에 초점을 두는 연구이기 때문에 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이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리적 적응

특성과 실제적인 부모-성인자녀 관계 특성, 그리고 가족관련 가치 및 태도 특성을 중심으로 변수를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비혼 성인자녀의 부모와의 동거 및 경제적 의존 여부에 따른 집단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차이는 어떠한가?

- 비혼 성인자녀세대 집단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차이는 어떠한가?

- 부모세대 집단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비혼 성인자녀의 부모와의 동거 및 경제적 의존 여부에 따른 집단별 심리적 적응 특성 차이는 어떠한가?

- 비혼 성인자녀세대 집단별 심리적 적응 특성 차이는 어떠한가?

- 부모세대 집단별 심리적 적응 특성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비혼 성인자녀의 부모와의 동거 및 경제적 의존 여부에 따른 집단별 부모-성인자녀 관계 특성 차이는 어떠한가?

- 비혼 성인자녀세대 집단별 부모-성인자녀관계 특성 차이는 어떠한가?

- 부모세대 집단별 부모-성인자녀관계 특성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비혼 성인자녀의 부모와의 동거 및 경제적 의존 여부에 따른 집단별 가족관련 가치 및 태도 특성 차이는 어떠한가?

- 비혼 성인자녀세대 집단별 가족관련 가치 및 태도 특성 차이는 어떠한가?

- 부모세대 집단별 가족관련 가치 및 태도 특성 차이는 어떠한가?

이러한 연구는 부모-비혼 성인자녀 동거를 비혼 성인자녀에 의한 노부모 부양으로만 간주하고 접근하던 기존의 연구들과 비혼 성인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존과 기생으로만 접근하는 최근의 연구들을 통합하여, 비혼 성인자녀세대와 부모세대 양자의 맥락에서 이해하고자하기 때문에, 기존의 선행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 의미로 학문적 의의를 갖는다. 특히 본 연구는 부모와 동거하면서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썬거루족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형도 함께 파악하면서 차이를 검증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다양한 맥락 속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모-비혼 성인자녀의 관계를 재조명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II. 선행연구고찰

우리 사회에서 부모와 성인자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부모와 기혼성인자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주로 노부모 부양과 관련된 동거나 세대 간 자원이전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즉 노부모의 건강이나 경제적 이유(M. Kim & S. Lee, 2009)와 사별 후 홀로됨(I. Kwak, 2012)으로 인해 성인자녀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으로 동거를 인식하고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부모와 기혼성인자녀 간 자원이 어떻게 이전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들(J. Kim & H. Song, 2008; Y. Lee & S. Koh, 2011)이 있다.

본 연구와 관련되는 성인자녀의 부모의존을 살펴본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하였다. 2000년을 전후해 우리 사회에서 젊은이들의 취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후 성인자녀의 부모의존이 '썬거루족' 현상으로 언론 등에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기 힘으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보다 부모 집에 살면서 자기 수입을 여유롭게 쓰고자 하는 의미가 강한 '기생독신(parasite single)'(M. Yamada, 1999)이라는 용어가 일본에서 들어와 언론을 통해 회자되는 등 성인자녀의 부모와의 동거는 부정적인 의미로 재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부모-비혼 성인자녀세대 간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는 발달과정상 '독립'이나 '자율'의 가치보다는 '의존'이나 '유대'의 가치를 보다 더 강조하기 때문에 성인자녀와의 긴 동거를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이러한 인구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비교적 최근에 일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미혼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Y. Lee, Y. Lee, H. Choi, and H. Lee(2011)에서는 '기생독신'이라는 말과 유사한 '부모의존 독신성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성인자녀의 부모의존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 따르면,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주된 이유는 자녀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며, 두 세대 간 관계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분화와 미혼 성인자녀의 동거가 부모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Y. Lee, S. Km, Y. Lee, & H. Choi, 2011)에서는 미혼 성인자녀와 부모 모두의 자아분화 수준이 미혼 성인자녀와의 동거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혼 성인자녀와의 동거가 부모의 심리적 스트레스나 삶의 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구자들은 결혼 전에는 부모와 동거하다가 결혼 후 독립을 하거나, 결혼 이후에도 부모 부양을 이유로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경

우가 혼한 우리나라의 문화가 작용한다고 보았다. 성인자녀와 부모의 동거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Y. Choi(2014)은 부모에게 의존하는 독신 성인의 부모가 일반 부모보다 불리한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부모와 성인자녀 간 관계만족도가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것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년기 비혼 여성의 결혼과 가족 담론을 살펴본 M. Sung(2014)에 따르면, 부모와 함께 살고 있거나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중년 비혼 여성은 투병 중인 아버지를 돌보거나 조카를 돌보는 일에 거의 전적으로 또는 보조적으로 참여하면서 결혼하지 않은 자신이 부모를 모시거나 가족을 도와주는 상황을 당연한 도리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 부모에게 의존하는 성인자녀들이 증가하면서 기생독신이라는 용어도 만들어진 일본에서는 이들을 일본 사회의 장기적 경제 침체와 자식에게 무한정의 애정을 보이는 부모세대가 합작해서 만든 부정적인 사회적 결과물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M. Yamada, 2001). 그리고 이러한 기생독신자가 현재는 부모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이후 부모세대가 은퇴하고 경제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들에 대한 지원이 사회적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개별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크다.

한편, 서구 사회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력으로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성인자녀와의 동거는 부모의 행복과 생활만족의 수준을 낮추는 부정적인 요인임을 전제하고 연구가 시작되었다(J. Suito & K. Pillemer, 1988). 그러나 미국 Integrated Public Use Microdata Series (IPUMS)를 이용해서 1960년에서 1990년 사이에 성인자녀가 부모와 동거할 가능성을 살펴본 연구(M. Messineo & R. Wojtkiewicz, 2004)에 따르면, 최근으로 올수록 결혼한 적이 없거나 이혼한 성인자녀가 증가했으며, 이들의 경우 기혼 성인자녀 집단에 비해 부모와 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럽에서도 높은 주거비, 낮은 직업안정성, 높은 실업률 때문에 부모와 성인자녀가 동거하는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남유럽에서는 가족이 성인자녀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 Newman & S. Aptekar, 2006).

이러한 성인자녀의 부모와의 동거나 의존이 두 세대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의 결과는 일관되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먼저, 성인자녀의 부모와의 동거나 의존이 부정적이라고 보는 연구들은 이러한 상황이 부모의 심리적 스트레스, 가족갈등 및 가족기능 약화의 요인이 되며(J. Aldous, 1987; K. Birditt, K. Fingerma, & S. Zarit,

2010; B. Mitchell & E. Gee, 1996), 부모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 McLanahan & J. Adams, 1987)고 밝혔다. 반면, 성인자녀의 부모와의 동거나 의존이 부정적이지 않다고 보는 연구를 보면, 25-39세 성인자녀와 동거하면서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부모들의 우울 수준이 그렇지 않는 부모에 비해 높지 않다고 보고하였다(A. Byers, B. Levy, H. Allore, M. Bruce, & S. Kasl, 2008). 또한 성인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부모가 갈등을 거의 보고하지 않았으며(J. Suito & K. Pillemer, 1988),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W. Aquilino & K. Supple, 1991)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동거를 결정할 때 부모세대의 경제적 수준과 성인자녀세대의 경제적 필요성(J. Kahn, F. Goldschelder, & J. Garcia-Mangano, 2013)과 부모세대와 성인자녀세대의 동거를 비교적 보편적인 삶의 형태로 보는 문화적 가치(A. Gonzales, 2007)나 성인자녀의 자율적 선택 여부(E. Kins, W. Beyers, B. Soenens, & M. Vansteenkiste, 2009)가 작용한다고 밝혔다. 즉 부모세대가 경제적 수준이 높으며, 성인자녀세대에서 부모와의 동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며, 부모세대와 성인자녀세대의 동거를 자연스럽게 인식하면서, 부모가 성인자녀와의 관계에서 권위를 유지하며, 이런 상황에서 성인자녀가 좀 더 혜택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자녀세대 본인의 가치와 필요를 고려해서 부모와 장기적으로 동거하는 경우에는 성인자녀의 복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모와 비혼 성인자녀 관계는 다층적 맥락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연구 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비혼 성인자녀 관계의 다양한 측면이 실증적으로 밝혀질 수 있도록 연구문제를 구성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만 35세 이상 비혼 성인자녀가 있는 부모세대와 만 35세 이상 비혼 성인자녀세대를 동거와 경제적 의존 여부에 따라 4집단으로 나눈 뒤, 집단별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심리적 적응 및 부모-비혼 성인자녀 관계, 가족관련 가치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부모세대는 결혼한 적이 없는 만 35세 이상의 자녀가 있으며, 본인은 만 75세 미만인 남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녀세대의 경우는 만 35세 이상으로 결혼한 적이 없으며, 생존한 부모가 모두 만 75세 미만인 남녀로 한정하였다. 거주지역은 부모세대와 자

녀세대 모두 서울시인 경우로 하였다.

만 35세 이상 비혼 성인자녀로 한정된 이유는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결혼을 통해서 부모 슬하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2014년 초혼연령이 남성 32.4세, 여성 29.8세(Statistics Korea, 2015)로 나타났듯, 통상적으로 남녀 모두 30대 중반을 부모와의 동거에서 벗어나 독립하는 시점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의 연령을 만 75세 미만으로 한정된 것은 70대 중반부터는 부모세대가 고령화되면서 부모-자녀 간 관계 및 상호작용의 성격이 변화하기 때문에 부모가 만 75세 이상인 경우는 부모-성인자녀 간 상호작용을 '일방적 의존'과 '상호성'의 맥락에서 보고자 한 본 연구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만 35세 이상의 성인자녀와 만 75세 미만의 부나 모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거주지역을 서울시로 한정된 이유는, 본 연구가 한국에서 동거하고 있는 부모-성인자녀 간 상호작용을 '일방적 의존'과 '상호성'의 맥락에서 실증적으로 살펴본 초기 연구이므로, 거주하는 지역의 문화 및 삶의 양식의 다양성을 최대한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거주지를 서울시로 한정하였다. 특히 성인자녀와의 동거와 자녀에 대한 지원에 전통적인 유교 가치관이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도시보다는 농촌, 대도시보다는 지방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가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S. Ok, M. Sung, & K. Shin, 2000), 이러한 사회적 압력이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통제하고자 거주지역을 서울시로 한정하였다.

연구의 자료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면대면 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질문지는 연구대상별로 문항의 성격과 내용이 다를 수 고려하여 성인자녀용, 동거 부모용, 비동거 부모용의 세 가지로 개발하였다. 2016년 1월에 예비조사(부모세대 43명, 비혼 성인자녀세대 51명)를 실시하였고, 예비조사 결과에 기초해서 질문지 문항을 수정, 보완한 뒤 본조사용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본조사는 2016년 6월 2일부터 6월 27일까지 전문리서치 회사에서 훈련된 면접원이 일대일 면접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자료를 수집하고자 부모세대와 비혼 성인자녀세대의 동거 여부와 성별을 고려하여 할당표집 하였다. 그 결과 부모세대 500명(동거 부 138명, 비동거 부 112명,

동거 모 112명, 비동거 모 138명)과 비혼 성인자녀세대 500명(동거 남성 131명, 비동거 남성 119명, 동거 여성 119명, 비동거 여성 131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대상자 선정 및 자료수집 과정은 연구책임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교의 연구윤리위원회(IRB)로부터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 중 만 35세 이상 비혼 성인자녀세대에 해당되는 경우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경제적 지원 비율을 두 축으로 해서 동거와 비동거, 그리고 경제적 의존과 경제적 독립으로 나누었다. 즉 질문지 문항 중 "귀하는 현재 부모님 중 한 분 이상과 같은 집에 주 5일 이상 살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동거',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비동거'로 분류하였다. 비혼 성인자녀세대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지 여부는 "지난 1년 동안 귀하와 귀하의 부모님이 주고받은 경제적 지원의 양을 비교한다면 어떠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부모님이 더 많이 지원했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비혼 성인자녀가 '경제적 의존'으로 분류하였고, '내가 더 많이 지원했다'라고 응답하였거나 '부모님과 내가 비슷했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경제적 비의존'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 기준에 따라 파악한 비혼 성인자녀세대의 부모와의 관계 유형은 <Table 1>에 제시한 것과 같다. 만 35세 이상 비혼 성인자녀세대의 경우 전체 연구대상자 중 31.6%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였고, 28.2%는 부모와 동거를 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독립한 경우였다. 21.8%는 부모와 동거하면서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우였고, 18.4%는 부모와 동거하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는 의존하고 있는 경우였다.

한편 연구대상자 중 만 35세 이상 비혼 성인자녀가 있는 부모세대도 자녀와의 동거와 경제적 지원 비율을 두 축으로 해서 동거와 비동거, 그리고 해당 자녀의 경제적 의존과 경제적 독립으로 나누었다. 즉 질문지 문항 중 "귀하는 만 35세 이상이고, 결혼한 적이 없는 자녀와 주 5일 이상 같이 살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동거',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비동거'로 분류하였다. 해당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는지 여부는 "지난 1년 동안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와 이 자녀가 주고받은 경제적 지원의 양을 비교한다면 어떠합니

Table 1. Frequency of unmarried adult children based on co-residency and economic dependency on their parents

(N = 500/ unit: person(%))

Co-residence with Parents	Economic dependent on parents	
	Yes	No
Yes	109(21.8)	141(28.2)
No	92(18.4)	158(31.6)

까?”라는 질문에 대해 ‘내(우리)가 더 많이 지원했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비혼 성인자녀세대의 ‘경제적 의존’으로 분류하였고, ‘이 자녀가 더 많이 지원했다’라고 응답하였거나 ‘나(우리)와 이 자녀가 비슷했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경제적 비의존’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 기준에 따라 파악한 부모세대의 비혼 성인 자녀와의 관계 유형은 <Table 2>에 제시한 것처럼, 전체 연구대상자 중 41.8%는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와 따로 살고 있었으며, 30%는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리고 20%는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고, 8.2%는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녀와 비동거하고 있었다.

연구대상자 중 비혼 성인자녀세대의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Table 3>에 제시한 것과 같다. 비혼 성인자녀 세대의 성별은 할당표집하였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각각 50%였다. 부모와의 관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동거·의존’형과 ‘비동거·비의존’형의 경우 과반수(각 51.38%, 54.43%)가 여성이었다. 전체 평균 연령은 만 37.91세였으며, ‘비동거·

Table 2. Frequency of parents having unmarried adult children 35 years of age or older based on co-residency and economic dependency of adult children (N = 500/ unit: person(%))

Co-residence with adult children	Economic dependency from adult children	
	Yes	No
Yes	100(20.0)	150(30.0)
No	41( 8.2)	209(41.8)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unmarried adult children 35 years of age or older

	All (N = 500) n(%)	CO·DEP* (n = 109) n(%)	CO·IND (n = 141) n(%)	AL·DEP (n = 92) n(%)	AL·IND (n = 158) n(%)
Gender					
male	250(50.00)	53(48.62)	78(55.32)	47(51.09)	72(45.57)
female	250(50.00)	56(51.38)	63(44.68)	45(48.91)	86(54.43)
Living parents					
none	1( .20)	0( .00)	0( .00)	0( .00)	1( .63)
only father	22( 4.40)	0( .00)	16(11.35)	0( .00)	6( 3.80)
only mother	178(35.60)	33(30.28)	59(41.84)	29(31.52)	57(36.08)
both parents	299(59.80)	76(69.72)	67(46.81)	63(68.48)	94(59.49)
No. of siblings					
none	50(10.00)	13(11.93)	10( 7.09)	6( 6.52)	21(13.29)
one	189(37.80)	47(43.12)	61(43.26)	44(47.83)	37(23.42)
two	187(37.40)	28(25.69)	55(39.01)	34(36.96)	70(44.30)
three	74(14.80)	21(19.27)	15(10.64)	8( 8.70)	30(18.99)
Education					
high school diploma	61(12.20)	20(18.35)	21(14.89)	3( 3.26)	17(10.76)
2-3 year college degree	120(24.00)	35(32.11)	18(12.77)	19(20.65)	48(30.38)
4 year college degree	308(61.60)	53(48.62)	99(70.21)	65(70.65)	91(57.59)
graduate degree	11( 2.20)	1( .92)	3( 2.13)	5( 5.43)	2( 1.27)
Job track/trait					
permanent worker	412(82.40)	77(70.64)	115(81.56)	87(94.57)	133(84.18)
temporary/contract worker	25( 5.00)	15(13.76)	3( 2.13)	2( 2.17)	5( 3.16)
self-employed	55(11.00)	11(10.09)	23(16.31)	2( 2.17)	19(12.03)
unemployed	8( 1.60)	6(5.50)	0( .00)	1( 1.09)	1( .63)
	M(SD)	M(SD)	M(SD)	M(SD)	M(SD)
Age	37.91(2.28)	37.34( 1.39)	38.11(2.45)	37.12(1.45)	38.58(2.75)
No. of siblings	1.60( .92)	1.57( 1.03)	1.53( .78)	1.53( .90)	1.72( .98)
Monthly average income (₩10,000)	320.2(93.7)	269.2(118.2)	340.7(89.3)	327.5(63.2)	332.9(80.6)
Health status	3.17( .55)	3.07( .49)	3.16( .50)	3.18( .57)	3.23( .62)
Subjective SES	5.19(1.26)	4.69(1.45)	5.40(1.04)	5.57( .98)	5.13(1.33)

\*CO·DEP indicates a group of co-resident and economically dependent adult children.

CO·IND indicates a group of co-resident and economically independent adult children.

AL·DEP indicates a group of living alone and economically dependent adult children.

AL·IND indicates a group of living alone and economically independent adult children.

의존'형이 네 유형 중 가장 낮은 만 37.12세, '비동거·비의존'형이 가장 높은 만 38.58세였다. 부모 모두가 생존한 경우가 59.80%로 과반수였으며, 유형별로도 '동거·비의존'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부모 모두 생존하는 비율이 과반수였다. 평균 형제수는 1.6명이었다. 교육수준은 과반수인 61.6%가 대졸이었으며, 각 유형별로 보았을 때도 '동거·의존'형을 제외하고는 대졸이 과반수였다. '동거·의존'형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전문대졸 비율이 높았다. 절대 다수(82.4%)가 고용주에게 고용된 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었고, '동거·의존'형의 경우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에 속하는 경우가 13.76%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월소득은 평균 320만원이었고 네 집단 중 '동거·의존'형의 월평균소득이 네 집단 중 가장 낮았다. 연구대상자는 평균 이상으로 건강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으며, 돈, 교육,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중간 이하에 속한다고 응답한 '동거·의존'형을 제외하고는 중간 이상의 사회계층에 속한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연구대상자 중 부모세대의 비혼 성인자녀와의 관계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Table 4>에 제시된 것과 같다. 부모세대의 젠더 비율은 할당표집하였기 때문에 남성과 여

성은 각각 50%였다. 비혼 자녀와의 관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동거·비의존'형을 제외하고는 과반수가 여성이었다. 부모세대의 평균 연령은 만 69.44세였으며, 유형별 차이는 거의 없었다. 총 자녀수는 평균 2.61명이었고, 그 중 미혼자녀수는 1.06명이었다. 결혼상태는 '동거·비의존'형의 경우 72%가 유배우 상태였으며, 그 외 유형은 절대 다수인 80% 이상이 유배우 상태였다.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가 55.2%로 과반수였으나 '동거·의존'형과 '비동거·의존'형에서는 중졸 이하보다 고졸이 많았다. 월평균소득은 200-299만원대가 42.6%로 가장 많았다. 반면, '동거·비의존'형과 '비동거·의존'형에서는 199만원 미만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연구대상자 중 부모세대는 평균 이상으로 건강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으며, '비동거·의존'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돈, 교육,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중간 이하의 사회계층에 속한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2. 변수측정

1)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혼 성인자녀세대의 부모와의 동거 및 경제적 의존 여부에 따른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parents having unmarried adult children 35 years of age or older

	All (N = 500) n(%)	CO-DEP <sup>a</sup> (n = 100) n(%)	CO-IND (n = 150) n(%)	AL-DEP (n = 41) n(%)	AL-IND (n = 209) n(%)
Gender					
male	250(50.00)	48(48.00)	90(60.00)	15(36.59)	97(46.41)
female	250(50.00)	52(52.00)	60(40.00)	26(63.41)	112(53.59)
Marital status					
married	400(80.0)	86(86.0)	108(72.0)	36(87.8)	170(81.3)
unmarried	100(20.0)	14(14.0)	42(28.0)	5(12.2)	39(18.7)
Education					
middle school or below	276(55.20)	45(45.0)	81(54.0)	16(39.02)	134(64.11)
high school	201(40.20)	47(47.0)	65(43.3)	19(46.34)	70(33.49)
college degree +	23( 4.60)	8( 8.0)	4( 2.7)	6(14.63)	5( 2.39)
Monthly average income (₩10,000)					
-199	167(33.4)	9( 9.0)	67(44.67)	16(39.02)	75(35.89)
200-299	213(42.6)	58(58.0)	48(32.00)	14(34.15)	93(44.50)
300-399	81(16.2)	18(18.0)	31(20.67)	5(12.20)	27(12.97)
400~	39( 7.8)	15(15.0)	4( 2.67)	6(14.63)	14( 6.70)
	M(SD)	M(SD)	M(SD)	M(SD)	M(SD)
Age	69.44(3.22)	69.37(3.01)	69.43(3.39)	69.44(2.80)	69.48(3.39)
No. of children	2.61( .83)	2.51( .78)	2.65( .88)	2.66( .82)	2.61( .83)
No. of unmarried children	1.06( .24)	1.06( .24)	1.11( .32)	1.07( .26)	1.02( .14)
No. of grandchildren					
Health status	2.82( .41)	2.91( .38)	2.82( .40)	2.66( .48)	2.80( .41)
Subjective SES	4.79(1.28)	4.84(1.46)	4.68(1.01)	5.10(1.53)	4.78(1.26)

<sup>a</sup>CO-DEP indicates a group of parents having co-resident and economically dependent adult children.  
 CO-IND indicates a group of parents having co-resident and economically independent adult children.  
 AL-DEP indicates a group of parents having living alone and economically dependent adult children.  
 AL-IND indicates a group of parents having living alone and economically independent adult children.

위해 사용한 변수는 성별, 연령, 형제수, 부모생존 여부, 교육수준, 취업형태, 월평균소득, 건강상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이다. 연령, 형제수, 월평균소득은 연속변수로 응답한 값을 그대로 분석하였다.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N. Adler, E. Epel, G. Castellazzo, and J. Ickovics (2000)의 Subjective SES scale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011년 Korea Health Panel(KHP) 설문지에 수록된 문항의 진술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아래의 사다리 그림에서 돈, 교육,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위쪽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 아래쪽에는 못 사는 사람들이 위치합니다. 귀하는 이 사다리에서 어디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10점 척도 문항이다. ‘가장 못 사는 사람들’ 1점에서부터 ‘가장 잘 사는 사람들’ 10점까지의 연속변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지각함을 알 수 있다. 그의 교육수준의 경우 고졸 이하는 0, 전문대졸 1, 대졸 이상은 2로 코딩하였다. 성별은 남성은 1, 여성은 0으로, 부모생존 여부는 부모가 모두 돌아가신 경우 0, 어머니만 계시는 경우 1, 아버지만 계시는 경우 2, 부모 모두 생존해 계시는 경우를 3으로 코딩하였으며, 취업형태는 현재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를 0, 사업, 자영업이나 가족의 일을 돕는 경우를 1, 고용주에게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일하는 경우를 2, 임시, 계약직으로 고용되어있는 경우를 3으로 코딩하였다.

부모세대의 비혼 성인자녀와의 동거 및 경제적 의존 여부에 따른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변수는 비혼 성인자녀가 응답한 질문과 동일한데, 결혼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를 추가하였다. 부모세대의 결혼상태는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1, 이혼이나 사별 등의 이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0으로 코딩하였다.

## 2) 심리적 적응 특성

비혼 성인자녀세대 및 부모세대의 동거 및 경제적 의존 여부에 따른 유형별 심리적 적응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변수는 주관적 행복, 생활만족도, 자존감, 우울의 4가지 특성이었다. 성인자녀세대의 경우에는 자아분화를 추가하여 5가지 특성을 분석하였다. 주관적 행복은 “귀하는 요즘 얼마나 행복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행복하지 않다’ 0점에서 ‘매우 행복하다’ 10점으로 표시된 수평선 상에서 자신이 행복한 정도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생활만족도는 W. Pavot and E. Diener(1993)의 생활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전반적으로 나는 나의 이상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를 비롯한 5문항에 대한 7점 척도이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7점까지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자녀 응답자의 경우 .91, 부모응답자의 경우 .92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자존감 측정은 M.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Self 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들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를 비롯한 10문항에 대한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 이루어지며, 부정적 진술은 역산을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단, 변안문제로 인해 국내 문헌에서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문항은 삭제하고 사용할 것을 추천하므로(J. Lee, S. Nam, M. Lee, J. Lee, & S. Lee, 2009) 이를 제외한 9문항에 대해 평균값을 통해 자존감을 측정하였으며,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77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우울은 L. Radloff(1977)의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CES-D)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지난 1주일 동안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를 포함하여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드물게 없음 (1일 미만)’ 0점, ‘가끔’ 1점, ‘때때로’ 2점, ‘대부분/항상’ 3점으로 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을 많이 경험하였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자녀응답자의 경우 .78, 부모응답자의 경우 .84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성인자녀세대의 경우에만 조사한 자아분화는 E. Cho & H. Chung(2007)이 개발한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사람들은 내가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편이라고 말한다”를 포함한 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88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 3) 부모-성인자녀 관계 특성

비혼 성인자녀세대 및 부모세대의 동거 및 경제적 의존 여부에 따른 유형별 부모-성인자녀 관계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변수는 면대면 교류빈도, 전화 교류빈도, 의사소통만족도, 전반적 부모-성인자녀관계만족도, 최근 부모-성인자녀관계 변화, 애정적 결속, 애착회피, 애착불안 등 8가지 특성이었다. 성인자녀세대의 경우 면대면 교류빈도는 부와 모로 나누어서 얼굴 마주하기, 이야기 나누기, 식사 같이 하기 등 직접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빈도를 ‘만나지 않음’ 0점부터 ‘거의 매일’ 10점까지 코딩하여 측정하였다. 전화 교류빈도는 전화, 문자, 이메

일 등으로 연락하는 빈도를 '연락하지 않음' 0점부터 '거의 매일' 10점까지로 코딩하여 측정하였다. 의사소통만족도는 "귀하는 현재 아버지/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단일 질문에 대해 '매우 불만족' 1점에서부터 '매우 만족' 4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나 모와의 의사소통에 만족함을 의미한다. 부모와의 관계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볼 때, 귀하는 아버지/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단일 문항에 대해 '매우 나쁨' 1점에서부터 '매우 좋음' 7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나 모와의 관계에 만족함을 의미한다. 부모-성인자녀관계 변화는 5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해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나빠졌다' 1점부터 '매우 좋아졌다' 5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부모세대의 경우 성인자녀세대에게 질문한 것과 동일한 문항에 해당 성인자녀를 적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애정적 결속은 R. Roberts and V. Bengtson(1993)의 부모자녀애정척도(Perceived Parent-Child Affection scale)를 J. Kim and J. Lee(2015)이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성인자녀세대와 부모세대 각각에게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귀하는 인생의 현 시점에서 아버지/어머니/자녀와 얼마나 가깝다고 느끼십니까?"라는 문항을 포함해서 4문항에 대해 '아주 조금' 1점에서부터 '매우 많이' 6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나 모 또는 자녀와의 애정적 결속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녀응답자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정적 결속도 척도 모두 Cronbach's  $\alpha$ 값이 .85로, 부모응답자의 경우 Cronbach's  $\alpha$ 값이 .87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은 R. Fraley, M. Heffernan, A. Vicary & C. Brumbaugh(2011)의 친밀한 관계-관계구조 경험척도(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 Relationship Structures: ECR-RS)를 번안하여 사용한 J. Kim and J. Lee(2015)의 대학생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응답자에 따라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성인 애착을 회피와 불안으로 나누어 애착인물별로 측정하는 것이 특징인데, 본 연구에서는 성인자녀세대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애착회피는 "내 문제나 걱정거리를 보통 아버지/어머니와 의논한다."를 포함해서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애착불안은 "아버지/어머니가 나를 내칠까봐 걱정된다."를 포함해서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척도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7점까지 가능하며, 의미가 긍정적인 문항은 역산하였다. 따라서 각 척도별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회피 수준과 애착불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애착회피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아버지에 대한 애착회피가 .73 어머니에 대한 애착회피가 .72로 신뢰할 만한 수준을 보였고, 애착불안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아버지에 대한 애착불안이 .85 어머니에 대한 애착불안이 .89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부모세대에게도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alpha$ 값은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애착회피의 경우 .80,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애착불안의 경우 .84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 4) 가족관련 가치 및 태도 특성

비혼 성인자녀세대 및 성인자녀세대의 동거 및 경제적 의존 여부에 따른 유형별 가족관련 가치 및 태도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변수는 결혼관, 성인자녀지원에 대한 태도, 노부모 부양의식, 긍정적 자녀관, 부정적 자녀관, 가족주의의 6가지 특성이었다. 결혼관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다'는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 사이에 응답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성인자녀지원에 대한 태도 척도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지원해야 하는 9가지 영역(예: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 취업준비 비용, 생활비나 용돈, 주거 제공 및 주거비, 집안일 지원, 결혼준비 비용, 결혼 후 경제적 지원, 손자녀 돌봄 지원 등)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부터 '매우 동의한다' 4점까지 응답할 수 있도록 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도구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함을 의미한다.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성인자녀세대는 .78, 부모세대는 .81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노부모 부양의식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2010)의 2010 제2차 가족실태조사에서 사용한 노부모에 대한 동거 부양, 경제적 부양, 아들/딸 구분 없는 돌봄에 대한 인식을 묻는 3개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여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노부모 부양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성인자녀세대가 .67, 부모세대가 .75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긍정적 자녀관은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를 포함한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2010)의 2010 제2차 가족실태조사의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응답할 수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성인자녀세대가 .64, 부모세대가 .60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부정적 자녀관은 "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든

일이다.”를 포함한 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0)의 2010 제2차 가족실태조사의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응답할 수 있다.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성인자녀세대는 .62, 부모세대는 .54이었다. 가족주의는 S. Kim et al.(2005)에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나 자신보다 내 가족과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가를 고려해야 한다.”를 포함하여 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주의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성인자녀세대가 .73, 부모세대가 .63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3. 자료분석 방법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심리적 적응 특성, 부모-성인자녀 관계 특성, 가족관련 가치 및 태도 특성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 등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였다. 비혼 성인자녀와 부모의 동거 및 경제적 의존 여부에 따른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심리적 적응 특성, 부모-성인자녀 관계 특성, 가족관련 가치 및 태도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연속변수인 경우에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범주형 변수인 경우에는 카이제곱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원분산분석에서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 경우에는 Scheffé 방식으로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통계분석을 위해 STAT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비혼 성인자녀의 부모와의 동거 및 경제적 의존 여부에 따른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차이

먼저, 비혼 성인자녀세대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는 <Table 5>와 같다.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연령( $F = 11.47, p < .001$ ), 교육년수 ( $F = 7.18, p < .001$ ), 월평균소득( $F = 15.39, p < .001$ ), 부

Table 5.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based on coresidency and economic dependency of unmarried adult children with parents

(N = 500)

	CO·DEP* (n = 109)	CO·IND (n = 141)	AL·DEP (n = 92)	AL·IND (n = 158)	F
	M(SD)	M(SD)	M(SD)	M(SD)	
Age	37.34( 1.39) <sub>ab</sub>	38.11( 2.45) <sub>bc</sub>	37.12( 1.45) <sub>a</sub>	38.58( 2.75) <sub>c</sub>	11.47***
No. of siblings	1.57( 1.03)	1.53( .78)	1.53( .90)	1.72( 0.98)	1.24
Years of edu	14.65( 1.55) <sub>a</sub>	15.18( 1.54) <sub>bc</sub>	15.57( 1.18) <sub>c</sub>	14.99( 1.41) <sub>ab</sub>	7.18***
Mo avg income	269.17(118.2) <sub>a</sub>	340.67(89.33) <sub>b</sub>	327.50(63.22) <sub>b</sub>	332.88(80.63) <sub>b</sub>	15.39***
Health status	3.07( .49)	3.16( .50)	3.18( .57)	3.23( .62)	1.86
Subjective SES	4.69( 1.45)	5.40( 1.04)	5.57( .98)	5.13( 1.33)	10.48
	n(%)	n(%)	n(%)	n(%)	$\chi^2(df)$
Gender					
male	53(48.62)	78(55.32)	47(51.09)	72(45.57)	2.96
female	56(51.38)	63(44.68)	45(48.91)	86(54.43)	(3)
Living parents					
none	0( .00)	0( .00)	0( .00)	1( .63)	
only father	0( .00)	16( .00)	0( .00)	6( 3.80)	36.39***
only mother	33(30.28)	59(41.84)	29(31.52)	57(36.08)	(9)
both	76(69.72)	67(46.81)	63(68.48)	94(59.49)	
Job track/triats					
permanent	77(70.64)	115(81.56)	87(94.57)	133(84.18)	
temp/contract	15(13.76)	3( 2.13)	2( 2.17)	5( 3.16)	49.23***
self-employed	11(10.09)	23(16.31)	2( 2.17)	19(12.03)	(9)
unemployed	6( 5.50)	0( .00)	1( 1.09)	1( .63)	

\*CO·DEP indicates a group of co-resident and economically dependent adult children.

CO·IND indicates a group of co-resident and economically independent adult children.

AL·DEP indicates a group of living alone and economically dependent adult children.

AL·IND indicates a group of living alone and economically independent adult children.

Note. Means in the same row that do not share subscripts differ in the Scheffé post-hoc comparison.

\*  $p < .05$ . \*\*  $p < .01$ . \*\*\*  $p < .001$ .

모 생존 여부( $\chi^2 = 36.39, df = 9, p < .001$ ), 취업형태( $\chi^2 = 49.23, df = 9, p < .001$ )였다. Scheffé 방식을 이용한 사후검증 결과를 보면, '비동거·의존' 형이 다른 집단에 비해 연령이 낮으며, '비동거·비의존' 형이 다른 집단에 비해 연령이 높았다. 교육년수는 '비동거·의존' 형이 가장 길었으며, '동거·의존' 형이 가장 낮았다. 월평균소득은 '동거·의존' 형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낮았다. 카이제곱분석 결과를 보면, 부모생존여부는 '동거·의존' 형에서 부모 모두 생존한 비율이 높았으며(69.72%), '동거·비의존' 형에서 모만 생존한 비율이 높았다(41.84%). 취업형태에서는 '비동거·의존' 형에서 정규직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94.57%), '동거·의존' 형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13.76%), '동거·비의존' 형에서는 자영업의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16.31%). 한편 '동거·의존' 형에서는 미취업의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5.50%). 그 외 형제수, 건강상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성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부모세대의 비혼 성인자녀세대와의 동거 및 경제적 의존 여부에 따른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유형별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미혼자녀수( $F = 4.72, p < .01$ ), 교육년수( $F = 6.05, p < .001$ ), 건강상태( $F = 3.87, p < .01$ ), 성별( $\chi^2 = 10.19, df = 3, p < .05$ ), 결혼상태( $\chi^2 = 10.05, df = 3, p < .05$ ), 월평균소득( $\chi^2 = 53.02, \chi^2 = 9, \chi^2 < .001$ )이었다. Scheffé 방식을 이용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동거·비의존' 형 비혼 성인자녀를 둔 경우가 '비동거·비의존' 형에 비해 미혼자녀수가 많았다. 교육년수는 '동거·의존' 형과 '비동거·의존' 형을 둔 부모세대가 '비동거·비의존' 형 비혼 성인자녀세대를 둔 경우보다 길었다. 건강상태는 '비동거·의존' 형 부모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카이제곱분석 결과를 보면 성별은 '동거·비의존' 형에서 아버지의 비율이 높았으며(60%), '비동거·의존' 형에서 어머니 비율이 높았다(63.41%). 결혼상태는 '비동거·의존' 형에서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87.8%), '동거·비의존' 형에서 이혼이나 사별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28%). 월평균소득은 '동거·비의존' 형에서 199만원 미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44.67%), '동거·의존' 형에서 200-299만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58%). '동거·비의존' 형에서 300-399만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20.67%), '동

Table 6.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based on coresidency and economic dependency of parents with their unmarried adult children

(N = 500)

	CO·DEP <sup>a</sup>	CO·IND	AL·DEP	AL·IND	F
	(n = 100)	(n = 150)	(n = 41)	(n = 209)	
	M(SD)	M(SD)	M(SD)	M(SD)	
Age	69.37( 3.01)	69.43( 3.39)	69.44( .80)	69.48( 3.29)	.03
No. of children					
total children	2.51( .78)	2.65( .88)	2.66( .82)	2.61( .83)	.62
unmarried children	1.06( .24) <sub>ab</sub>	1.11( .32) <sub>b</sub>	1.07( .26) <sub>ab</sub>	1.02( .14) <sub>a</sub>	4.72 <sup>**</sup>
Years of education	10.39( 2.45) <sub>b</sub>	9.84( 2.50) <sub>ab</sub>	10.90( 2.73) <sub>b</sub>	9.38( 2.65) <sub>a</sub>	6.05 <sup>***</sup>
Health status	2.91( .38) <sub>b</sub>	2.82( .40) <sub>b</sub>	2.66( .48) <sub>a</sub>	2.80( .41) <sub>b</sub>	3.87 <sup>**</sup>
Subjective SES	4.84( 1.46)	4.68( 1.09)	5.10( 1.53)	4.78( 1.26)	1.22
	n(%)	n(%)	n(%)	n(%)	$\chi^2(df)$
Gender					
male	48(48.00)	90(60.00)	15(36.59)	97(46.41)	10.19 <sup>*</sup>
female	52(52.00)	60(40.00)	26(63.41)	112(53.59)	(3)
Marital status					
married	86(86.00)	108(72.00)	36(87.80)	170(81.34)	10.05 <sup>*</sup>
widowed or divorced	14(14.00)	42(28.00)	5(12.20)	39(18.66)	(3)
Mo avg income (₩10,000)					
- 199	9( 9.00)	67(44.67)	16(39.02)	75(35.89)	
200-299	58(58.00)	48(32.00)	14(34.15)	93(44.50)	53.02 <sup>***</sup>
300-399	18(18.00)	31(20.67)	5(12.20)	27(12.92)	(9)
400 ~	15(15.00)	4( 2.67)	6(14.63)	14( 6.70)	

<sup>a</sup>CO·DEP indicates a group of parents having co-resident and economically dependent adult children.

CO·IND indicates a group of parents having co-resident and economically independent adult children.

AL·DEP indicates a group of parents having living alone and economically dependent adult children.

AL·IND indicates a group of parents having living alone and economically independent adult children.

Note. Means in the same row that do not share subscripts differ in the Scheffé post-hoc comparison.

\*  $p < .05$ . \*\*  $p < .01$ . \*\*\*  $p < .001$ .

거·의존'형에서 400만원 이상 고소득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15%). 그 외 연령, 총 자녀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비혼 성인자녀의 부모와의 동거 및 경제적 의존 여부에 따른 유형별 심리적 적응 특성 차이

비혼 성인자녀세대의 유형별 심리적 적응 특성의 차이는 <Table 7>에 제시된 것과 같다. 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심리적 적응 특성은 주관적 행복( $F = 14.36, p < .001$ ), 생활만족도( $F = 3.76, p < .01$ ), 우울( $F = 15.39, p < .001$ )이었다. Scheffé 방식을 이용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동거·비의존'형과 '비동거·의존'형이 '동거·의존'형과 '비동거·비의존'형에 비해 주관적 행복 수준이 높았다. 또한 '동거·의존'형이 다른 세 유형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낮았다. 그리고 우울 수준은 4가지 유형 중 '비동거·의존'형에서 가장 높았다. 그 외 자존감과 자아분화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비혼 성인자녀의 부모와의 동거 및 경제적 의존 여부에 따른 부모세대 유형별 심리적 적응 특성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심리적 적응 특성은 주관적 행복( $F = 7.77, p < .001$ )이었다. Scheffé 방식을 이용한 사후검증 결과, '동거·의존'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주관적 행복 수준이 낮았다. 그 외 생활만족도, 자존감, 우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3. 비혼 성인자녀의 부모와의 동거 및 경제적 의존 여부에 따른 유형별 부모-성인자녀관계 특성 차이

비혼 성인자녀세대와 부모세대의 동거 및 경제적 의존 여부에 따른 비혼 성인자녀세대 유형별 부모-성인자녀관계 특성 차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비혼 성인자녀세대 유형별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보이는 특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유형별

Table 7. Means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based on coresidency and economic dependency of unmarried adult children with their parents

	CO·DEP <sup>a</sup>	CO·IND	AL·DEP	AL·IND	F
	(n = 109)	(n = 141)	(n = 92)	(n = 158)	
	M(SD)	M(SD)	M(SD)	M(SD)	
Happiness	6.17(1.35) <sub>a</sub>	6.96( .99) <sub>b</sub>	6.93( .78) <sub>b</sub>	6.46(1.12) <sub>a</sub>	14.36***
Life satisfaction	4.14(1.09) <sub>a</sub>	4.49( .74) <sub>b</sub>	4.25( .82) <sub>b</sub>	4.43( .94) <sub>b</sub>	3.76**
Self-esteem	2.91( .44)	2.99( .39)	3.02( .39)	2.99( .35)	1.57
Depression	.76( .39) <sub>bc</sub>	.63( .24) <sub>a</sub>	.77( .27) <sub>c</sub>	.65( .30) <sub>ab</sub>	15.39***
Differentiation of self	2.53( .38)	2.58( .38)	2.59( .25)	2.53( .28)	1.31

<sup>a</sup>CO·DEP indicates a group of co-resident and economically dependent adult children.

CO·IND indicates a group of co-resident and economically independent adult children.

AL·DEP indicates a group of living alone and economically dependent adult children.

AL·IND indicates a group of living alone and economically independent adult children.

Note. Means in the same row that do not share subscripts differ in the Scheffé post-hoc comparison.

\*\* p < .01. \*\*\* p < .001.

Table 8. Means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arents based on coresidency and economic dependency of their unmarried adult children

	CO·DEP <sup>a</sup>	CO·IND	AL·DEP	AL·IND	F
	(n = 100)	(n = 150)	(n = 41)	(n = 209)	
	M(SD)	M(SD)	M(SD)	M(SD)	
Happiness	5.96(1.40) <sub>a</sub>	6.54(1.05) <sub>b</sub>	6.02(1.42) <sub>ab</sub>	6.53(1.08) <sub>b</sub>	7.77***
Life satisfaction	3.87(1.08)	4.19( .94)	4.09( .98)	4.15( .83)	3.76
Self-esteem	2.82( .42)	2.89( .34)	2.90( .30)	2.84( .33)	1.12
Depression	.83( .38)	.79( .28)	.88( .47)	.79( .31)	1.01

<sup>a</sup>CO·DEP indicates a group of co-resident and economically dependent adult children.

CO·IND indicates a group of co-resident and economically independent adult children.

AL·DEP indicates a group of living alone and economically dependent adult children.

AL·IND indicates a group of living alone and economically independent adult children.

Note. Means in the same row that do not share subscripts differ in the Scheffé post-hoc comparison.

\*\*\* 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아버지와의 관계 특성은 면대면 교류빈도( $F = 155.94, p < .001$ ), 최근 부모-성인자녀관계 변화( $F = 7.73, p < .001$ )였다. Scheffé 방식을 이용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면대면 교류빈도의 경우 동거와 비동거라는 거주형태가 영향을 미쳐 ‘동거·의존’형과 ‘동거·비의존’형이 아버지와 면대면으로 교류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아버지와 면대면 교류빈도가 높은 경우는 ‘비동거·의존’형이었다. 이에 비해 ‘비동거·비의존’형의 경우 아버지와 면대면으로 교류하는 빈도가 가장 낮았다. 5년 전과 비교한 최근 아버지와의 관계 변화를 보면, ‘비동거·의존’형이 ‘동거·비의존’형과 ‘비동거·비의존’형에 비해 관계가 좋아졌다고 인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 외 전화교류 빈도, 의사소통만족도, 전반적 부모-성인자녀관계만족도, 애정적 결속, 애착회피, 애착불안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비혼 성인자녀세대 유형별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보이는 특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4가지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어머니와의 관계 특성은 면대면 교류빈도( $F = 336.19, p < .001$ ), 전화 교류빈도( $F = 27.04, p < .001$ ), 의사소통만족도( $F = 4.92, p < .01$ ), 전반적 부모-성인자녀관계만족도( $F = 4.42, p < .01$ ), 애정적 결속( $F = 6.83, p < .001$ ), 애착회피( $F = 6.86, p < .001$ )였다. Scheffé 방식을 이용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Table 9. Means of relationships with fathers based on coresidency and economic dependency of unmarried adult children

(N = 321)

	CO·DEP*	CO·IND	AL·DEP	AL·IND	F
	(n = 76)	(n = 82)	(n = 63)	(n = 100)	
	M(SD)	M(SD)	M(SD)	M(SD)	
Frequency of contacts	9.24( .76) <sub>c</sub>	9.30(1.15) <sub>c</sub>	7.11(1.81) <sub>b</sub>	5.70( .76) <sub>a</sub>	155.94***
Frequency of calls, emails, text messages	8.12(1.74)	8.12(1.61)	8.24(1.24)	7.68(1.74)	2.41
Communication satisfaction	4.84( .82)	5.12( .92)	4.87( .96)	4.86( .82)	1.86
Overall relationship	4.74( .91)	4.83( .91)	4.76( .93)	4.48( .91)	2.29
Recent changes in relationships	3.11( .53) <sub>ab</sub>	2.93( .34) <sub>a</sub>	3.25( .47) <sub>b</sub>	3.07( .29) <sub>a</sub>	7.73***
Affectual solidarity	4.03( .70)	4.05( .76)	4.02( .71)	3.85( .70)	1.46
Attachment avoidance	3.79( .73)	4.01( .76)	4.00( .70)	3.97( .73)	1.50
Attachment anxiety	2.93( .89)	3.04(1.08)	2.92( .99)	2.64( .88)	2.92

\*CO·DEP indicates a group of co-resident and economically dependent adult children.

CO·IND indicates a group of co-resident and economically independent adult children.

AL·DEP indicates a group of living alone and economically dependent adult children.

AL·IND indicates a group of living alone and economically independent adult children.

Note. Means in the same row that do not share subscripts differ in the Scheffé post-hoc comparison.

\*\*\* $p < .001$ .

Table 10. Means of relationships with mothers based on coresidency and economic dependency of unmarried adult children

(N = 477)

	CO·DEP*	CO·IND	AL·DEP	AL·IND	F
	(n = 109)	(n = 125)	(n = 92)	(n = 151)	
	M(SD)	M(SD)	M(SD)	M(SD)	
Frequency of contacts	9.64( .55) <sub>c</sub>	9.58(1.14) <sub>c</sub>	7.24(1.23) <sub>b</sub>	5.91(1.38) <sub>a</sub>	336.19***
Frequency of calls, emails, text messages	9.00( .69) <sub>c</sub>	8.82( .83) <sub>b</sub>	8.59( .70) <sub>b</sub>	8.09(1.12) <sub>a</sub>	27.04***
Communication satisfaction	5.43( .66) <sub>ab</sub>	5.50( .60) <sub>b</sub>	5.46( .75) <sub>ab</sub>	5.21( .79) <sub>a</sub>	4.92**
Overall relationship	5.11( .82) <sub>b</sub>	5.10( .74) <sub>b</sub>	5.02( .83) <sub>ab</sub>	4.77(1.05) <sub>a</sub>	4.42**
Recent changes in relationships	3.09( .50)	3.02( .31)	3.04( .29)	3.09( .31)	1.37
Affectual solidarity	4.58( .48) <sub>b</sub>	4.54( .47) <sub>b</sub>	4.46( .59) <sub>ab</sub>	4.29( .72) <sub>a</sub>	6.83***
Attachment avoidance	3.17( .63) <sub>a</sub>	3.42( .70) <sub>b</sub>	3.59( .56) <sub>b</sub>	3.42( .73) <sub>b</sub>	6.86***
Attachment anxiety	2.98(1.21)	2.81(1.16)	2.91(1.16)	2.86(1.12)	.44

\*CO·DEP indicates a group of co-resident and economically dependent adult children.

CO·IND indicates a group of co-resident and economically independent adult children.

AL·DEP indicates a group of living alone and economically dependent adult children.

AL·IND indicates a group of living alone and economically independent adult children.

Note. Means in the same row that do not share subscripts differ in the Scheffé post-hoc comparison.

\*\* $p < .01$ . \*\*\* $p < .001$ .

결과를 보면 면대면 교류빈도의 경우 아버지와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동거와 비동거라는 거주형태가 영향을 미쳐 '동거·의존'형과 '동거·비의존'형이 아버지와 면대면으로 교류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비동거·의존'형이 높았으며, '비동거·비의존'형의 경우 어머니와 면대면으로 교류하는 빈도가 가장 낮았다. 전화 교류빈도의 경우 '동거·의존'형이 어머니와 전화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높은 유형은 '동거·비의존'형과 '비동거·의존'형이었으며, '비동거·비의존'형이 가장 낮았다. 의사소통만족도는 '동거·비의존'형이 '비동거·비의존'형에 비해 높았다. 전반적 부모-성인자녀관계만족도는 '동거·의존'형과 '동거·비의존'형이 '비동거·비의존'형보다 높았다. 어머니와의 애정적 결속도 역시 '동거·의존'형과 '동거·비의존'형이 '비동거·비의존'형보다 높았다. 애착회피는 '동거·의존'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낮았다. 그 외 최근 부모-성인자녀관계 변화, 애착불안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비혼 성인자녀의 부모와의 동거 및 경제적 의존 여부에 따른 부모세대 유형별 자녀와의 관계 특성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11>에 제시되어 있다. 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자녀와의 관계 특성은 면대면 교류빈도( $F = 481.53, p < .001$ ), 전화 교류빈도( $F = 11.58, p < .001$ ), 의사소통만족도( $F = 15.15, p < .001$ ), 전반적 부모-성인자녀관계만족도( $F = 7.25, p < .001$ ), 최근 부모-성인자녀관계 변화( $F = 10.39, p < .001$ ), 애정적 결속( $F = 10.39, p < .001$ ), 애착회피( $F = 26.45, p < .001$ ), 애착불안( $F = 3.50, p < .05$ )의 모든 특성이었다.

Scheffé 방식을 이용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면대면 교류빈도의 경우 비혼 성인자녀세대와 동일하게 동거와 비동거라는 거주형태가 영향을 미쳐 '동거·의존'형과 '동거·비의존'형이 비혼 성인자녀와 면대면으로 교류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비동거·의존'형이 높았고, '비동거·비의존'형의 경우 성인자녀와 면대면으로 교류하는 빈도가 가장 낮았다. 전화 교류빈도 역시 동거와 비동거라는 거주형태 차이가 영향을 미쳐 '동거·의존'형과 '동거·비의존'형이 '비동거·의존'형과 '비동거·비의존'형에 비해 전화로 교류하는 빈도가 높았다. 의사소통만족도는 동거와 의존이 함께 영향을 미쳐 '동거·비의존'형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비동거·비의존'형이 높고, '비동거·의존'형이 가장 낮았다. 전반적 부모-성인자녀관계만족도는 '동거·비의존'형이 가장 높았고, '비동거·의존'형이 가장 낮았다. 5년 전과 비교한 최근 부모-성인자녀관계 변화는 성인자녀의 경제적 의존 여부가 영향을 미쳐, '동거·비의존'형과 '비동거·비의존'형 성인자녀를 둔 경우 '동거·의존'형과 '비동거·의존'형 자녀를 둔 경우보다 긍정적으로 보고하였다. 비혼 성인자녀와의 애정적 결속도는 동거와 비동거라는 거주형태 차이가 영향을 미쳐, '동거·의존'형과 '동거·비의존'형 자녀를 둔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비동거·비의존'형, '비동거·의존'형 순서로 높았다. 애착회피는 '동거·비의존'형 자녀를 둔 경우가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동거·의존'형과 '비동거·비의존'형이었으며, '비동거·의존'형에서 자녀와의 애착회피 수준이 가장 높았다. 애착불안은 '동거·의존'형 자녀를 둔 경우가 '동거·비의존'형 자녀를 둔 경우보다 낮았다.

Table 11. Means of parental perceived relationships with the unmarried adult child based on coresidency and economic dependency of unmarried adult children (N = 500)

	CO·DEP* (n = 100)	CO·IND (n = 150)	AL·DEP (n = 41)	AL·IND (n = 209)	F
	M(SD)	M(SD)	M(SD)	M(SD)	
Frequency of contacts	9.48( .56) <sub>c</sub>	9.31( .75) <sub>c</sub>	6.63( .99) <sub>b</sub>	6.18(1.13) <sub>a</sub>	481.53***
Frequency of calls, emails, text messages	8.85(1.70) <sub>b</sub>	8.63( .92) <sub>b</sub>	8.02(1.15) <sub>a</sub>	8.12(1.08) <sub>a</sub>	11.58***
Communication satisfaction	4.96( .88) <sub>bc</sub>	5.22( .75) <sub>c</sub>	4.29(1.08) <sub>a</sub>	4.82( .82) <sub>b</sub>	15.15***
Overall relationship	4.76( .92) <sub>bc</sub>	4.84( .82) <sub>c</sub>	4.29( .93) <sub>a</sub>	4.50( .88) <sub>ab</sub>	7.25***
Recent changes in relationships	2.83( .83) <sub>a</sub>	3.08( .56) <sub>b</sub>	2.61( .70) <sub>a</sub>	3.10( .52) <sub>b</sub>	10.39***
Affectual solidarity	4.27( .68) <sub>c</sub>	4.25( .60) <sub>c</sub>	3.72( .74) <sub>a</sub>	4.07( .58) <sub>b</sub>	10.39***
Attachment avoidance	3.68( .95) <sub>b</sub>	3.20( .59) <sub>a</sub>	4.28( .74) <sub>c</sub>	3.51( .67) <sub>b</sub>	26.45***
Attachment anxiety	2.90(1.02) <sub>a</sub>	3.29(1.04) <sub>b</sub>	3.05( .93) <sub>ab</sub>	3.02(1.00) <sub>ab</sub>	3.50*

\*CO·DEP indicates a group of co-resident and economically dependent adult children.

CO·IND indicates a group of co-resident and economically independent adult children.

AL·DEP indicates a group of living alone and economically dependent adult children.

AL·IND indicates a group of living alone and economically independent adult children.

Note. Means in the same row that do not share subscripts differ in the Scheffé post-hoc comparison.

\*\*p < .01. \*\*\*p < .001.

4. 비혼 성인자녀의 부모와의 동거 및 경제적 의존 여부에 따른 유형별 가족관련 가치 및 태도 특성 차이

비혼 성인자녀세대의 유형별 가족관련 가치 및 태도 특성의 차이는 <Table 12>와 같다. 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가족관련 가치 및 태도 특성은 결혼관 ( $F = 17.38, p < .001$ ), 성인자녀지원에 대한 태도( $F = 14.16, p < .001$ ), 노부모 부양의식( $F = 23.43, p < .001$ ), 긍정적 자녀관( $F = 7.47, p < .001$ )이었다. Scheffé 방식을 이용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결혼관의 경우 부모와의 동거와 비동거라는 거주형태가 영향을 미쳐, '동거·의존'형과 '동거·비의존'형이 다른 두 유형에 비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며, '비동거·비의존'형, '비동거·의존'형 순으로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부모의 성인자녀지원에 대한

태도는 '동거·비의존'형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동거·의존'형과 '비동거·비의존'형이 높았으며, '비동거·의존'형이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긍정적 자녀관의 경우 '동거·의존'형과 '비동거·의존'형에 비해 '비동거·비의존'형에서 낮게 나타났다. 그 외 부정적 자녀관, 가족주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부모세대의 유형별 가족관련 가치 및 태도 특성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13>과 같다. 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가족관련 가치 및 태도 특성은 결혼관( $F = 3.14, p < .05$ ), 노부모 부양의식( $F = 4.44, p < .01$ ), 가족주의( $F = 8.35, p < .001$ )였다. Scheffé 방식을 이용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결혼관의 경우 '동거·의존'형 비혼 성인자녀를 둔 경우가 '비동거·비의존'형 비혼 성인자녀를 둔 경우보다 긍정적이었다. 노부모 부양의식은 '동거·의존'형과 '동거·비의존'형 자녀를 둔 부모가

Table 12. Means of family related values/attitudes of unmarried adult children based on coresidency and economic dependency of unmarried adult children with their parents (N = 500)

	CO·DEP <sup>a</sup>	CO·IND	AL·DEP	AL·IND	F
	(n = 109)	(n = 125)	(n = 92)	(n = 151)	
	M(SD)	M(SD)	M(SD)	M(SD)	
Marriage	3.86(.74) <sub>c</sub>	3.91(.67) <sub>c</sub>	3.27(.89) <sub>a</sub>	3.54(.75) <sub>b</sub>	17.38 <sup>***</sup>
Adult child support	2.28(.40) <sub>b</sub>	2.44(.41) <sub>c</sub>	2.09(.45) <sub>a</sub>	2.27(.36) <sub>b</sub>	14.16 <sup>***</sup>
Elderly parent support	3.66(.45) <sub>b</sub>	3.64(.46) <sub>b</sub>	3.38(.57) <sub>a</sub>	3.23(.53) <sub>a</sub>	23.43 <sup>***</sup>
Positive value on children	3.76(.50) <sub>b</sub>	3.67(.55) <sub>ab</sub>	3.82(.41) <sub>b</sub>	3.53(.57) <sub>a</sub>	7.47 <sup>***</sup>
Negative value on children	3.66(.51)	3.70(.57)	3.65(.47)	3.69(.46)	.23
Familism	3.04(.52)	2.97(.39)	2.88(.45)	2.97(.51)	1.83

<sup>a</sup>CO·DEP indicates a group of co-resident and economically dependent adult children.  
 CO·IND indicates a group of co-resident and economically independent adult children.  
 AL·DEP indicates a group of living alone and economically dependent adult children.  
 AL·IND indicates a group of living alone and economically independent adult children.

Note. Means in the same row that do not share subscripts differ in the Scheffé post-hoc comparison.  
<sup>\*\*\*</sup> $p < .001$ .

Table 13. Means of family related values/attitudes of parents based on coresidency and economic dependency of the unmarried adult child (N = 500)

	CO·DEP <sup>a</sup>	CO·IND	AL·DEP	AL·IND	F
	(n = 100)	(n = 150)	(n = 41)	(n = 209)	
	M(SD)	M(SD)	M(SD)	M(SD)	
Marriage	3.23(.85) <sub>b</sub>	3.09(.90) <sub>ab</sub>	3.19(.84) <sub>ab</sub>	2.92(.97) <sub>a</sub>	3.14 <sup>*</sup>
Adult child support	2.40(.43)	2.35(.44)	2.39(.38)	2.32(.44)	1.01
Elderly parent support	3.50(.54) <sub>b</sub>	3.48(.60) <sub>b</sub>	3.37(.66) <sub>ab</sub>	3.29(.59) <sub>a</sub>	4.44 <sup>**</sup>
Positive value on children	3.92(.56)	3.95(.47)	3.85(.49)	3.86(.53)	.95
Negative value on children	3.65(.49)	3.57(.46)	3.51(.51)	3.62(.45)	1.27
Familism	3.33(.37) <sub>b</sub>	3.33(.34) <sub>b</sub>	3.29(.35) <sub>ab</sub>	3.15(.42) <sub>a</sub>	8.35 <sup>***</sup>

<sup>a</sup>CO·DEP indicates a group of parents having co-resident and economically dependent adult children.  
 CO·IND indicates a group of parents having co-resident and economically independent adult children.  
 AL·DEP indicates a group of parents having living alone and economically dependent adult children.  
 AL·IND indicates a group of parents having living alone and economically independent adult children.

Note. Means in the same row that do not share subscripts differ in the Scheffé post-hoc comparison.  
<sup>\*</sup> $p < .05$ . <sup>\*\*</sup> $p < .01$ . <sup>\*\*\*</sup> $p < .001$ .

‘비동거·비의존’형 자녀를 둔 부모보다 더 높았다. 가족주의의 경우도 ‘동거·의존’형과 ‘동거·비의존’형 자녀를 둔 부모가 ‘비동거·비의존’형 자녀를 둔 부모보다 높았다. 그 외 성인자녀지원에 대한 태도, 긍정적 자녀관, 부정적 자녀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모와 비혼 성인자녀의 동거 여부 및 경제적 의존 여부를 중심으로 부모-비혼 성인자녀 관계를 집단별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부모세대는 결혼한 적이 없는 만 35세 이상의 자녀가 있으며, 본인은 만 75세 미만인 남녀와, 자녀세대의 경우는 만 35세 이상으로 결혼한 적이 없으며, 생존한 부모가 모두 만 75세 미만인 남녀 중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에서는 부모세대와 만 35세 이상 비혼 성인자녀세대를 동거와 경제적 의존 여부에 따라 4집단으로 나눈 뒤, 집단별로 심리적 적응과 부모-비혼 성인자녀 관계, 가족관련 가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결과에 기초하여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혼 성인자녀세대를 부모와의 동거와 경제적 의존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집단을 나눈 결과, 집단별로 연령, 교육년수, 월평균소득, 부모생존여부, 취업형태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집에 얹혀산다는 의미로 썩어죽이라고 불리는 유형의 전형인 ‘동거·의존’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교육년수가 짧고 월평균소득이 적다. 반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동거·비의존’형의 경우 ‘동거·의존’형에 비해 월평균소득 수준이 높다. 또한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비혼 성인자녀세대의 경우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는 비율이 높다.

한편 부모세대의 경우, 비혼 성인자녀세대와의 동거와 자녀의 경제적 의존 유형별로 미혼자녀수, 교육년수, 건강상태, 성별, 월평균소득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부모세대에서 ‘동거·의존’형 비혼 성인자녀세대가 있는 경우 교육년수, 월평균소득수준이 다른 유형보다 높다. 또한 본인을 건강하다고 지각한다.

이처럼 만 35세 이상의 비혼 성인자녀세대가 부모와 함께 동거하면서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는 교육수준이나 월평균소득수준에서 불리한 여건에 있다. 이에 비해

이러한 자녀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 지원을 하는 부모세대는 사회인구학적 측면에서 보다 여유가 있어 성인자녀를 지원할 수 있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복지체계가 촘촘하지 못한 남유럽에서 가족, 즉 부모가 성인자녀와 동거하면서 성인자녀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K. Newman & S. Aptekar, 2006)가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비혼 성인자녀세대 유형별로 주관적 행복, 생활만족도, 우울 수준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 때문에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은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으로 관련된다. 이에 따라 ‘동거·의존’형 비혼 성인자녀세대의 주관적 행복, 생활만족도 수준은 다른 유형에 비해 낮으며, 우울 수준은 높다. 한편 부모세대의 경우, 유형별로 주관적 행복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부모세대도 ‘동거·의존’형 자녀가 있는 경우 주관적 행복 수준이 낮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의 경우 결혼 전에는 부모의 슬하에 있는 것을 당연시하기 때문에 미혼 성인자녀와의 동거가 부모의 심리적 스트레스나 삶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선행연구(Y. Lee, S. Km, Y. Lee, & H. Choi, 2011)와는 상반된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부모와의 동거가 비교적 자연스럽게 인식되는 20대에서 30대에 해당되는 성인자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결혼적령기를 넘겨 부모-비혼 성인자녀 간 동거 및 의존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만 35세 이상의 비혼 성인자녀세대를 연구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와 상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혼적령기를 넘겨서까지 부모와 동거하고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두 세대 모두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비혼 성인자녀세대 유형별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면대면 교류빈도, 최근 관계 변화 예측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경제적 의존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아버지와 면대면 교류를 많이 한다. 그러나 5년 전과 비교한 최근 아버지와의 관계 변화를 보면, ‘비동거·의존’형 비혼 성인자녀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지각한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면대면 교류빈도, 전화 교류빈도, 의사소통만족도, 전반적 부모-성인자녀관계만족도, 애정적 결속, 애착회피 등 거의 모든 부모와의 관계 특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동거·의존’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어머니와 면대면 교류, 전화 교류도 많이 하며, 의사소통과 전반적 관계에서도 만족하며, 애정적 결속도 높다. 반면 애착회피 수준은 낮다.

한편 부모세대 유형별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면대면 교류빈도, 전화 교류빈도, 의사소통만족도, 전반적 부모-성인

자녀관계만족도, 최근 부모-성인자녀관계 변화, 애정적 결속, 애착회피, 애착불안 등 모든 관계 특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자녀와의 교류빈도는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높다. 이 중 '동거·비의존'형 부모가 비혼 성인자녀와의 의사소통만족도, 전반적 부모-성인자녀관계만족도, 애정적 결속이 네 집단 중 가장 높고, 자녀에 대한 애착회피가 가장 낮아서 비혼 성인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동거·의존'형 부모는 비혼 성인자녀와의 의사소통만족도, 전반적 부모-성인자녀관계만족도, 애정적 결속이 가장 낮고, 최근 5년간 관계가 가장 나빠졌으며, 성인자녀에 대한 애착회피 경향이 가장 높아서 비혼 성인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거·의존'형 부모는 비혼 성인자녀에 대한 애착불안 수준이 가장 낮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와 동거하면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비혼 성인자녀의 상황이 부모-비혼 성인자녀 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의 결과(W. Aquilino & K. Supple, 1991; J. Suitor & K. Pillemer, 1988)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세대의 경제적 수준과 성인자녀세대의 경제적 필요성과 문화적 가치가 작용하는 멕시코의 경우(A. Gonzales, 2007)처럼, 한국 사회에서도 비혼 성인자녀와의 동거는 '의존'이기보다는 '유대'로 인식되는 측면이 큼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는 비혼 성인자녀와의 긴 동거와 의존을 비교적 자연스러운 생활로 인식하는 편임을 알 수 있다.

넷째, 비혼 성인자녀세대 유형별 가족관련 가치 및 태도에서는 결혼관, 성인자녀지원에 대한 태도, 노부모 부양 의식, 긍정적 자녀관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경제적 의존 여부를 떠나서 결혼과 노부모 부양에 대해 긍정적 가치를 보인다. 그리고 '동거·의존'형은 '비동거·비의존'형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을 당연시한다. 반면 '동거·의존'형은 '비동거·의존'형과 함께 자녀를 긍정적 존재로 지각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편 부모세대 유형별 가족관련 가치 및 태도에서는 결혼관, 노부모 부양의식, 가족주의에서 차이를 보인다. 부모와 동거하거나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비혼 성인자녀가 있는 경우,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며 노부모 부양에 대해서도 긍정적 가치를 보인다. 또한 가족주의 가치도 높다.

이러한 결과는 비혼 성인자녀세대의 부모와의 동거 및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 등 비혼 성인자녀세대의 부모에 대한 '의존'은 현실적인 가족 여건이나 양 세대의 가치 및

태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현실적으로 비혼 성인자녀의 의존을 감당할 수 있는 부모세대의 능력과, 이러한 삶의 형태를 당연시하는 문화적 가치가 이들 삶의 근거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이러한 삶의 양식을 선택하였거나,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지지하는 가치 및 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실리를 찾는 비혼 성인자녀세대의 상황은 부모세대와 성인자녀세대 모두의 주관적 행복을 떨어뜨린다. 특히 양 세대 중 실제 성인의 발달과업을 실현하지 못하고 부모와 동거하면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비혼 성인자녀가 심리적으로 더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는 '동거·의존'형도 부모세대와 관계는 잘 유지하고 있지만, 부모의 노년기가 장기화되는 시점까지 이러한 관계가 장기화될 때는 두 세대 관계에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일본에서 우려하는 기생독신의 문제, 즉 현재는 부모세대의 경제력에 의존하여 비교적 두 세대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부모세대의 노년기가 장기화되고 부양이 필요한 중기 및 후기 노인이 되면 세대 간 관계 갈등 및 경제적 문제가 예측된다는 지적(M. Yamada, 2001)이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사회적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현재는 비혼 성인자녀세대를 지원하고 있지만, 부모세대가 만 75세 이상의 중기 노인이 되면 비혼 성인자녀세대를 지원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상황이 되기 전에 비혼 성인자녀세대가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현실적인 일자리와 주택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세대뿐만 아니라 비혼 성인자녀세대 모두 '조금은 느슨하면서 명확한 경계를 가진 부모-성인자녀 관계'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과 장기화된 노년기를 전제하는 생활설계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서 상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는 하였지만,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한 부모와 비혼 성인자녀 세대 관계를 두 세대 모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동거와 경제적 의존의 맥락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높다. 또한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당연시 하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언급하는 결혼적령기를 넘긴 35세 이후 중년기에 해당되는 비혼 자녀세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썩어루족이나 기생독신이라는 용어가 갖는 부모와 동거하는 삶, 부모에게 의존하는 삶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인기로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35세 이상의 비혼 자녀들과 그들의 부모세대를 재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이 연구는 연구 목적에 맞게 동거 여부와 성별에 따른 할당표집을 하였기 때문에 확률표집을 통해 전국 규모의 대표성을 확보한 자료가 아니다. 따라서 부모세대와 비혼 성인자녀 세대의 특성을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표본은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세대와 비혼 성인자녀세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지역은 1인가구가 특히 많은 지역인 만큼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부모세대나 비혼 자녀세대의 특성은 타 지역과는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인이 되어 학업이나 취업을 이유로 자녀가 서울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가정의 경우 성인 자녀의 '비동거'와 '독립'의 의미는 서울에서 계속 살아왔던 가정에서의 성인자녀의 '비동거'나 '독립'의 의미와는 다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의 자녀세대 표본에서 성인자녀의 '비동거'와 부모세대 표본의 성인자녀의 '비동거'는 질적인 차이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sup>1)</sup>.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정교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연구는 부모세대와 비혼 성인자녀세대를 쌍으로 표집해서 조사한 연구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두 세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부모-자녀 관계 특성에 있어서 동일한 부모-자녀로부터 나온 결과가 아니므로 동거나 경제적 의존에 의한 부모와 자녀의 지각의 차이로 해석하는 데에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동거나 경제적 의존이라는 동일한 현상에 대해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같거나 다르게 지각하고 반응하는지를 밝힘으로써 세대 간 관계를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부모-비혼 성인자녀 간 관계를 동거와 경제적 의존을 중심으로 집단화하여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초기 연구이다. 따라서 집단별 차이를 통해 부모-비혼 성인자녀관계의 전반적 특성을 스케치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화된 연구 모형을 통해 상호 관련된 변수를 밝혀내거나 젠더 차이에 초점을 두는 등 구체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Adler, N. E., Epel, E. S., Castellazzo, G., & Ickovics, J. R. (2000). Relationship of subjective and objective social status with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functioning: Preliminary data in healthy white women. *Health Psychology, 19*(6), 586-592.
- Aldous, J. (1987). New views on the family life of the elderly and the near-elderl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9*(2), 227-234.
- Aquilino, W., & Supple, K. (1991). Parent-child relations and parent satisfaction with living arrangements when adult children live at hom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1), 13-27.
- Birditt, K. S., Fingerman, K. L., & Zarit, S. H. (2010). Adult children's problems and successes: Implications for intergenerational ambivalence.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65*(2), 145-153.
- Byers, A. L., Levy, B. R., Allore, H. G., Bruce, M. L., & Kasl, S. V. (2008). When parents matter to their adult children: Filial reliance associated with parents'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63*(1), 33-40.
- Cho, E. K., & Chung, H. J. (2007). Korean self-differentiation invento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Korean Family Therapy, 15*(1), 19-46.
- Choi, Y. S. (2014). A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of adult children cohabiting with their parents and an exploration of the frame of analysi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2*(4), 75-89.
- Descartes, L. (2006). Put your money where your love is: Parental aid to adult children.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3*, 137-147.
- Fraley, R. C., Heffernan, M. E., Vicary, A. M., & Brumbaugh, C. C. (2011). The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lationship Structures questionnaire: A method for assessing attachment orientations across relationships. *Psychological Assessment, 23*(3), 615-625.
- Gonzales, A. M. (2007). Determinants of parent-child coresidence among older Mexican parents: The salience of cultural values. *Sociological Perspectives, 50*(4), 561-577.

1) 이러한 표본의 특성으로 인해 본 연구는 크루스칼-왈리스(Kruskal-Wallis H test)를 추가로 실시하였으며, 평균순위 또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 Han, G. (2011). Korean Baby Boomers in Transition. SNU Institute on Aging & MetLife Korea Foundation. Retrieved from <https://www.metlife.com/assets/cao/mmi/publications/studies/2011/mmi-korean-boomers-.pdf>.
- Kahn, J. R., Goldschelder, F., & Garcia-Manglano, J. (2013). Growing parental economics power in parent-adult child households: Coresidence and financial dependency in the United States, 1960-2010. *Demography*, 50(4), 1449-1475.
- Kim, J. K., & Song, H. J. (2008). Intergenerational private income transfer between married children and their parents.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24(3), 77-98.
- Kim, J., & Lee, J. (2015). Adult attachment styles across close relationships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A latent profile analysi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3(4), 119-145.
- Kim, M. Y., & Lee, S. W. (2009). Determinants and regional patterns of parent-child coresidence among older Korean parents, 1985-2005.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15(4), 89-107.
- Kim, S. K., Cho, A.-J., Park, S. K., Kim, Y. K., Lee, S. M., Sung, M., & Lee, G. (2005). *Development of family survey scale and preliminary study*.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ns, E., Beyers, W., Soenens, B., & Vansteenkiste, M. (2009). Patterns of home leaving and subjective well-being in emerging adulthood: The role of motivational processes and parental autonomy support. *Developmental Psychology*, 45(5), 1416-1429.
- Kwak, I.-S. (2012). Deciding factors in the baby-boomer generation and the elderly making the choice of living with adult children.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6(4), 23-44.
- Lee, J. (2015). Revisiting young adults' instrumental dependence on their parents. In Y. Choi et al., *Speaking about Korean families: Phenomena and issues* (pp. 379-403). Seoul: Hawoo.
- Lee, J. Y., Nam, S. K., Lee, M. K., Lee, J. H., & Lee, S. M. (2009). Rosenberg' self-esteem scale: Analysis of item-level validit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1(1), 173-189.
- Lee, Y. B., Lee, Y. W., Choi, H. J., & Lee, H. Y. (2011). An explorative study on coresident adult childr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31, 5-30.
- Lee, Y., Km, S., Lee, Y., & Choi, H. (2011). The influence of self differentiation and coresidence with unmarried adult-child on parent's mental health.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19(2), 137-145.
- Lee, Y.-J., & Koh, S.-K. (2011). Resource transfers between mothers and adult children: Financial resources and caregiving. *Journal of the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29(6), 137-151.
- McLanahan, S. & Adams, J. (1987). Parenthood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nnual Review of Sociology*, 13, 237-257.
- Messineo, M. J., & Wojtkiewicz, R. A. (2004). Coresidence of adult children with parents from 1960 to 1990: Is the propensity to live at home really increasing? *Journal of Family History*, 29(1), 71-83.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0). *2010 National Survey of Korean Families*. (Government Publication No. 11-1383000-000035-01). Seoul, Korea: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Mitchell, B. A., & Gee, E. M. (1996). "Boomerang kids" and midlife parental marital satisfaction. *Family Relations*, 45(4), 442-448.
- Newman, K., & Aptekar, S. (2006). Sticking around: Delayed departure from the parental nest in Western Europe. Network on Transition to Adulthood Policy Brief, 28.
- Ok, S. W., Sung, M., & Shin, K. Y. (2000). A study on the family and kinship value in urban and rural families of Korea.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8(9), 1-17.
- Pavot, W., & Diener, E. (1993). Review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5(2), 164-172.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oberts, R. E. L., & Bengtson, V. L. (1993). Relationships with parents,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young adulthood: A further examination of identity theory. *Social Psychological Quarterly*, 56(4), 263-277.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tatistics Korea. (2012). Statistics from the family structure. *Living Statistics*, no. 2.
- Statistics Korea. (2013).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 of Korea.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kssc>
- Statistics Korea. (2015).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of Korea.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kssc>
- Suitor, J. J., & Pillemer, K. (1988). Explaining inter-generational conflict when adult children and elderly parents live togethe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0(4), 1037-1047.
- Sung, M. (2014). Marriage and family discourse of ever-single women in their 40s and 50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2(2), 131-141.
- Sung, M., & Byun, J. (2013). Factors associated with marital conflict for baby boomers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14(1), 103-113.
- Vassallo, S. Smart, D., & Price-Robertson, R. (2009). The roles that parents play in the lives of their young adult children. *Family Matters*, 82, 8-14.
- Yamada, M. (2001). *The family as risk*. Tokyo: Keiso Shobo (in Japanese).
- Yamada, M. (2004). *Parasite single no ji*. (translated by Kim, J. H.). Seoul: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ess (The original version was published in 1999).

- Received: November 15. 2016
- Revised: January 26. 2017
- Accepted: February 20. 2017